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52nd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14학년도 수능 A/B형 38~40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들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연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 임제 -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만월대: 고려의 왕궁 터.
 * 목적: 목동의 피리.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으로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39.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물도 내 안 같아서'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밤길 가는구나'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風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山林)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攀攀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夕陽)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陽芳草)는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야단스럽다
 - 정극인, 「상춘곡」 -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